

# 일본, 대만, 홍콩연수 그리고 마카오와 중국 땅 심천까지

이 상 재/대한결핵협회 홍보과장

지난 9월 충청남도로부터 시작된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일선 방역관계자의 긴장이 고조되고 경상북도 강원도 등 타시도로 환자발생이 확산되면서 급기야는 정부에서 콜레라 방역비상을 전국에 선포하였다.

부득이 우리도 예정된 해외연수 일정(당초 9.13-23)을 무기한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방문국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우리 연수단 일행은 1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달 10월 18일 오전 김포공항을 이륙하였다.

동남아 3개국(일본, 대만, 홍콩)의 국가결핵관리실태 및 결핵협회 사업 등 결핵전반에 관련 현황 파악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복지부, 각 시도 보건관계자 8명과 본회 직원 9명을 합하여 도합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복지부의 방역과 이사무관이 동행하게 되어 결핵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가 따르리라 생각하니 협회 직원으로서의 마음 든든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출발전 콜레라 덕분에 방문국 기후가 여행하기에 가장 편한 날씨로 날짜 선택이 참 좋았다는 여행사 직원의 이야기대로 첫도착지인 일본 동경의 날씨가 우리나라와 같이 쾌적하고 청명했다.

전철등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였던 예년과 달리 대절버스를 이용하여 숙소인 긴자호텔에 여장을 풀었으나 웬지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실감이 전혀 나질 않았다.

우리일행들은 출발전 간단한 상견례 정도만 갖은터라 분위기가 조금은 서먹서먹 했지만 저녁식사후 일행중 가장 연장자중 한 분이신 충남도청의 민과장님 초대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일정과 단체 생활에서 지켜야할 점 등을 논하면서 한잔, 두잔 돌린 술잔에 서먹했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나가고 있었다.



▲ 동경의 「신궁」 안의 제당 앞에 선 필자.

아침 일찍 우리 일행은 버스에 몸을 싣고 「기요세」시에 있는 일본결핵예방회 결핵연구소로 향했다. 초행이라 그런지 재치가 있어보이는 운전기사가 예상밖으로 더디게 목적지를 찾아 방문시간보다 조금 늦게 연구소에 도착하여 현관에서 「모리」 부소장과 본회 인천지부 부설의원 김원장(국제결핵관리 3개월코스 연수 중)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곧바로 소개된 사업부장과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3층에 마련된 강의실로 향했다.

일본의 국가 결핵관리는,

- 면역인구확대를 위한 BCG예방접종
-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보건소내소 유증상자 검진과 집단엑스선 검진 실시
- 발견환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관리(국비 또는 보험혜택 등 전액 무료치료)에 중점을 두고,
- 결핵예방회, 결핵연구소 사업으로는,
  - 홍보, 조사연구, 환자발견 및 치료
  - 에이즈 환자 수용시설 확보(결핵병동 일부 제공), 무료진료(정부보조)
  - 결핵중사 의료인 및 전문인력교육

과 간호대학생 등의 교육 실시

-세계 각국(후진국가 및 개발도상국) 결핵전문인력 실무교육실시와 정보수집 자료제공 등을 들 수 있다는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검사실 등의 시설물을 둘러본후 부설 복심자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의 내부구조와 환자진료 장면을 보고 난후 동건물 5층에 있는 결핵환자 입원 병동을 가던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놀랍게도 마스크와 끼운을 입고 환자용 이동식기대를 밀고(점심시간이었음) 가던 관리의사를 만났다.

미리 귀뜸을 받았는지 즉석에서 마스크를 벗고 결핵병동과 에이즈 환자수용 병동으로 안내한 후 이곳에도 남아도는 결핵병동을 활용하여 무료로(국가보조)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내려오는 길에 강의실에서 교육하는 장면을 보고 안내자에게 물으니 간호전문대생들의 교육이라면서 내국의 결핵관계자와 WHO를 통한 각국 의사 및 결핵관계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중에 있다고



▲ 대만의 일월담 현장사의 지은 9층탑 앞에서.

했다.

건물주변의 짜임새 있고 산뜻한 조경과 더불어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의료시설, 도서관, 강의실 등과 잘 훈련된 인적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느낄 수 있었다.

점심시간을 조금 지나 「모리」 부소장의 안내로 우리나라 한식적인 일본정식을 융성하게 대접받고 동경 신도청사와 타워를 관람하고 숙소로 도착하니 벌써 날이 어둑해졌다.

3일째 우리 일행은 오전에昨天的 결핵연구소 방문결과와 토의를 갖은 후 오후에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전철을 이용, 일본 전자상가의 메카인 아끼야바라에 도착하였다.

전자상가의 규모보다는 만들어진 제품들의 섬세함에 모두들 놀라는 것 같았으며 각자 소량의 필요물품을 구입하고 숙소로 오니 저녁시간이었다.

일행중 몇분의 여성분들이 오늘이 몇일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직방(직장에서 의 해방), 남방(남편으로부터의 해방),

자방(자식들로부터의 해방)의 3방때문에 도대체 시간가는 줄 모르니 이 얼마나 한가롭고 여유로운가 하면서 웃음 띤 얼굴로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저녁식사후 그분들의 모습이 눈에 띄지않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집안소식이 궁금한듯 전화통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성애는 가히 선진국수준을 훨씬 앞서가는게 아닌가 싶다.

어제부터 몸살기가 있다던 박부장님이 컨디션이 매우 안좋아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사무실 연락중 비보를 접했다. 아는 사람만 알기로 했다.

오늘은 대만으로 이동하는 날이다. 풀었던 짐을 아침 일찍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출국수속을 마치고 장시간 비행끝에 대만 숙소로 도착하니 밤 8시가 훨씬 넘었다. 입출국시 앞뒤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조금 짜증스러웠다.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안에서 한국에서 동년배끼리 상대방을 높여서 하는 말

을 김형, 박형하듯이 이곳 대만에서의 상대방의 높임말은 「따꺼」라는 발음으로 한다는 설명과 곁들여 우리나라 성씨(손씨, 이씨, 조씨 등)중에 이 말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들린다는 안내자의 농담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

일요일,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날만큼 좋은날은 없다.

비유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는 시귀가 있듯이 아마 모든 이들이 이날을 위해 6일동안 열심히 뛰고 땀흘리지 않나 생각된다. 늦잠 생각이 간절하다.

대만의 기후는 연중 6개월이 우기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날씨는 매우 좋았다.

8시 30분, 대만의 중심부 '대중'시 근처의 일월담을 향했다. 일월담은 대만의 명승지로서 해발 750m인 곳에 위치한 천연호로서 가늘고 긴 남서쪽을 '달'에 평면적인 동쪽을 '해'에 비유한 것이 이름의 유래이다. 그러나 낮에도 달밤에도 각기 아름다움을 지닌 호수라는 말도 있다. 4시간 가량의 긴 여정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호수와 여기에 떠 있는 유람선이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했다. 산줄기를 따라 호수 주변을 한바퀴 돌아 '열반상'이 있는 그 유명한 삼장법사의 유골을 모신 '현장사'와 '자은당(장개석의 모친상 모심)', '자은 9층탑'을 둘러보고 숙소로 도착했다. 식사후 모처

럼 일행이 모두 모여 피곤을 잊은 채 각시·도의 결핵사업의 발전적인 방안과 고층들을 토로하면서 맥주파티를 갖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월요일, '대북'으로 다시 돌아오니 점심때가 다되었다. 김치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오늘 점심은 오랜만에 한식이었다. 대만음식은 독특한 향료를 많이 넣어 먹기가 매우 곤혹스럽다. 집에서 '고추장'등 밑반찬을 조금 준비해 준다는 것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음식섭생도에 동참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게 적용해야 한다며 일체 준비못하게 한 것이 매우 후회스러워지는 것을 감추기가 힘들었다. 식사후 대북시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올라이' 민속촌에 들러 원주민들의 민속놀이를 관람하고 서울지부 '송'과장님을 비롯한 몇몇 일행들이 어울려 이들과 함께 못추는 춤춤씨를 뽐냈으니 지금 생각에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화요일, 약속된 시간에 대만성 방노협회에 도착하였다. Yang Sze-Pizo 회장과 Lin Tao Ping 대만성 만성병방치국장(방노협회사무총장 겸임)의 안내를 받았다. 대만의 결핵관리는 만성병 방치국을 중심으로 각지역별 보건국에서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BCG 신생아 접종 및 학교 신입생 접종 유무에 따른 추가 접종을 실시하며 별도로 평가반을 운영

-환자발견은 62년부터 엑스선 검진에 의한 주민검진을 실시하였으며 65년부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진과 객담검사실

시로 방법전환

-결핵환자 중앙등록제에 의한 화학 치료실시로 전국적인 환자관리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협회활동으로는,

-교육을 위한 결핵프로그램개발을 '56년부터 실시하여 첫째 결핵감염예방, 둘째 조기환자발견치료, 셋째 보건교육 확대실시 등으로 감염률이 5.7%에서 0.33%로 줄었으며

-제일 페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결핵 및 호흡기질환 등을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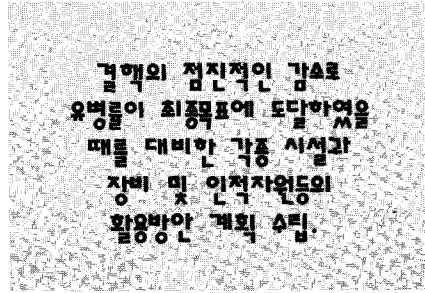
-홍보 및 보건교육과 Kinmen섬의 결핵관리시범사업과 학교학생 및 교직원 집진에 역점

-자체 건물 임대수입과 싼판매, 진료 수입으로 안정적 재원조성 등을 들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수요일, 홍콩으로 가기 위해 짐을 꾸려 공항으로 향했다.

대만에서 약 2시간 비행기를 탄 후 홍콩에 도착, 안내자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97년 12월로 영국의 조차기간이 끝나는 내용을 곁들으면서 숙소로 도착했다.

목요일, 오후에 방문일정이 예정되어 오전시간을 활용코저 해양공원을 관람하였다. 방대한 규모의 이 공원은 이동식 에스컬레이터가 정상까지 설치되었으며 각종 놀이기구, 학습용 관람시설, 민속촌, 화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의 회전식 관람타워는 홍콩섬 전체의 풍경을 관람하기에 충분하였으며 해양관의 대형수족관은 가히 놀랄만 했다. 금년 2월 본회의 쉼 도안소재 선택회의에서 「



남해바다의 신비가 소재로 결정된 뒤 금과 '김희중'씨와 한국의 해양박물관 등 바다속의 실물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황과약을 위해 동서분주했던 생각이 문득 떠올라 사진기에 해양관 풍경을 몇컷 담았다.

이어 한국식당에서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곁들여 맛있는 점심을 들고 홍콩 결핵, 폐, 심장질환 협회와 WANCHAI 폐전문병원을 방문, James Y. P. Yue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았다.

홍콩의 국가결핵관리는

-보건부 산하 결핵 및 폐질환 진료소가 있으며(홍콩섬 3개소, 코우룬과 신계지에 8개소와 1개 이동검진반 운영)

-의료진은 의사와 간호반(투약, 보건교육, 환자관리 및 추구관리담당) 및 사회사업담당으로 구분하고

-결핵관련 제경비는 무료이며 1개 BCG 진료소 운영

-병상수 94년 현재 757개

-결핵관리 전략 1) 환자발견, 2) 효과적 화학치료법 3) BCG접종 4) 예방 화학요법(널리 사용되지 않음) 5) 보건교육 등을 들 수 있으며,



▲ 홍콩의 협회 사무총장과 우리 연수단 일행이 다과회를 끝내고 기념 촬영한 모습.

첫째, 환자발견은 수동적 발견과 접촉자 집단건강검진 등 제한적인 능동적 발견이며,

둘째, 화학요법은 치료과정이 철저한 통제에 의하여 균양성자라도 입원치료가 제한되고 단기처방에 따라 2개월 SHRZ와 4개월 HR이 보통 처방되고 무료다. 치료중단자는 5%이며 투약중단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며 중단자에 대해서는 전화, 우편, 가정방문 등으로 중단율을 줄이고 있다.

셋째, BCG접종은 Glaxo freeze dried BCG를 사용하고 신생아,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94년에는 98%를 접종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환자자신이 의사선택, 투약을 자기마음대로 중지, 환자 근로상태, 수시로 이주, 인구과밀, 마약, 알콜중독 및 관리소홀 등을 들 수 있다.

협회사업으로는,

-점차적인 결핵의 감소로 결핵외 심장 및 흉병질환으로 진료영역을 확대

-1949년도 결핵요양소로 문을 연 Ruttonjee Hospital과 Grantham Hospital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핵병상수는 190 및 310개를 보유.

-병원은 결핵환자의 입원치료, 결핵 예방접종, 결핵약제연구 및 집단검진 등 정부결핵관리사업에 직접 참여

-재원으로는 주로 병원수입과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크리스마스 썰 모금은 상징적 의미) 기부금 모금방법은 사람 왕래가 많은 백화점 등에 모금통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화 되어 있어 매년 일정액이상이 모금된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협회측에서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 환담을 나누다가 즉석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방문을 마친후 저녁식사를 끝내고 우리 일행은 홍콩에서 64km 떨어진 도박의 도시 마카오(포르투갈영)을 향해 출발하였다. 휘황찬란한 홍콩의 야경을 뒤로하고 점보 쾌속선으로 약 1시간쯤 걸려 마카오에 도착, Lisboa 호텔 지하에 있는 동양 제일의 '카지노'장으로 들어가니 밤 11시가 넘었다. 규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컸고 야밤인데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생기가 돌혀 있다. 일행중 여러명이 도박장에 금일봉을 적선하고 여유있게 숙소에 돌아와 잠을 청했다.

**국제적인 결핵관리사업에  
적극 동참, 정보교류와  
지식보급 등 결핵부분의  
세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요일 오전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가 수학했다던 '성폴' 천주성당을 둘러보고, 오후에 홍콩으로 돌아와 현지 안내자의 권유로 중국에서 가장 경제발전이 빠른 속도를 진행하고 있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는 '심천'시를 방문할 수 있었다(홍콩에서 전동차로 40분 이동 '라우'역에 하차,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며 관광객들이 많아 입출국수속이 까다롭지 않음). 10년전까지만해도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 펼쳐진 이 도시는 1979년에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신흥 상공업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많은 변화를 예상한 덕에 평소 생각했던 중국이란 나라의 분위기가 그다지 낯설지만은 않았다. 잘 정돈된 시가지, 쪽쪽 뻗어진 고속도로와 고층빌딩 여느 자유국가의 시가지와 똑같은 모습을 보며 중국민속문화촌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 용인민속촌과 같은 분위기였으나 여기서 행해지는 민속쇼는 실내의 1부쇼와 민속촌앞 광장에서 벌어지는 2부쇼로 나누어 공연되었는데 1,000여명 가량되는 무희와 배우들이 어우러져 일사불란한 동작과 행동으로 자기

나라의 전통예술을 공연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밤하늘을 찢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 중국, 이 말을 오늘 다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았다.

저녁 늦게 홍콩속으로 돌아와 내일 귀국을 위하여 짐을 챙기고 나니 12시가 꼬박 지났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날이다. 오전에 일행이 모두 모여 이번 연수를 결산하는 토론을 갖고 의견을 집약시켰다.

첫째, 결핵퇴치를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결핵협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더욱 돈독히 유지되어야 하며,

둘째, 결핵환자 중앙등록제 실시등 전산화에 의한 체계적인 환자관리로 결핵관리정립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투자 요구,

셋째, 결핵의 점진적인 감소로 유병률이 최종목표에 도달하였을 때를 대비한 각종 시설과 장비 및 인적자원등의 활용 방안 계획 수립,

넷째, 국제적인 결핵관리사업에 적극 동참, 정보교류와 지식보급 등 결핵부분의 세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면을 통해 연수중 직책, 성별, 연령의 구분없이 단체생활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일행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서서 잠깐 언급한 비보는 우리협회 사무총장님의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태였다는 소식이었음을 늦게나마 알려드리고 지금 병원에서 투병중이신 그분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며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와 건강한 모습을 뵙기를 기원한다.